

우리나라 내외국인 관광규모 및 경비지출 형태 분석

Analysis on the Pattern of Inbound and Outbound Tourism and Their Receipts and Expenditures in Korea

이현재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Hyun-Jae Rhee(hyunrhee@cju.ac.kr)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외국인의 관광규모 및 경비지출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는 소득수준을 제외한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은 관광객 규모나 소득뿐만 아니라 가격과 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는 관광객 수나 관광경비 지출이 모두 관광객 규모, 국내의 물가, 국내의 소득, 및 환율 등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외여행 여부와 관광경비 지출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위해서는 해외관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선결된다면 관광산업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 중심어 : | 규모효과 | 상대가격효과 | 상대소득효과 | Granger 인과관계 | 관광수지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inbound and outbound tourism and their receipts and expenditures in Korea, and wishes to suggest a policy implication. The finding in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inbound tourism is mainly influenced by a relative income, while the receipts are effected not only by a scale of tourism, relative price, relative income, but also by the exchange rate. Outbound tourism and the expenditures are tentatively determined by a set of information which is synthetically made up by an economic factors. To this end, it could be concluded that tourism policy should be elaborately established to take of the inbound tourism, and appropriately designed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 for tourism would be helpful to assist the outbound tourism.

■ keyword : | Scale Effect | Relative Price Effect | Relative Income Effect | Granger Causality | Tourism Trade Balance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세계 주요 국가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교통과 통신시스템이 첨단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관광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관광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선진국 위주의 관광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지역 등이 신흥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고부가가치인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관광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의 관광산업 비중이 GDP의 11.5%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외국인 관광객(inbound tourists)의 형태를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성이 없었다. 그 후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가 1998년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유여행국가로 지정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환승 관광객(transit tourism)의 비중(2009년에 외국인 관광객의 18.5%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은 17.6%)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비 지출증대 대책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가 관광정책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2].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에 해외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내국인의 해외관광(outbound tourists)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그 동안 잠재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현실화 되고, 자국민 국내관광비율이 53%에 그치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해외관광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관광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제는 관광부분이 중요한 산업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내외국인 관광에 따른 관광경비 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에 해외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이후부터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관광수지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1999년에 관광수지가 흑자를 시현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또 다시 관광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추세를 보였던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제한적이었지만 원화의 대미환율이 하락세를 유지함에 따라 원화의 구매력이 상승하였고, 상대적으로 물가와 소득수

준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내국인의 해외관광 규모나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행으로 정착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도 크게 작용 했다고 생각된다[3].

결과적으로 글로벌경제와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규모의 내국인 관광객 수나 관광경비 지출을 파악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내외국인의 관광규모 및 경비지출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수지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 관광 규모와 관광경비 지출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회귀분석에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이 상대가격, 상대소득, 및 환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Lee, Var, and Blaine(1996)의 모형으로 추정방정식을 구성할 것이다[4].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5]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는 EViews 7.2의 통계패키지에 의해 처리하였다.

II. 기존의 주요연구

1. 국내의 주요연구

내외국인 관광객 및 경비지출 형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로는 모수원(2010), 이강욱 외(2000), 및 송운강(2007)이 내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의 변화가 경제상황, 환율, 및 국제유가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가를 분석하였다[6-8]. 즉, 모수원(2010)의 충격반응분석에 의하면 환율이 해외여행

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음(-)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강욱 외(2000)는 대미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0.561% 증가하고 내국인 관광객은 0.55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내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규모는 소득수준이나 물가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리고 송운강(2007)은 1997년을 전후로 분석기간을 설정하고 Chow검정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환율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구조조정(structural break)이 해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8].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병우(2000)는 목적별, 항목별, 및 국가별 여행수지의 변동요인을 공적분검정과 오차수정모형으로 검정하였고[9], 이강욱·김덕기(2000)는 관광수지 악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10]. 또한, 이강욱·류광훈(1999)은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11], 심원섭(2006)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였다[12]. 이들의 기존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이 국제수지의 개선, 산업간 파급효과의 확대,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명숙(2005)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계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13], 최지연(2007)은 지역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동일 콘텐츠를 활용하는 관광자원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14]. 이채은·이진영(2009)은 군집분석과 ANOVA분석을 통해 관광행동에 따른 여행상품 선택의 속성을 분석하였다[15]. 그리고 박노현 외(2011)는 해외여행지의 관광이미지와 포지셔닝의 관계를 연구하였다[16]. 즉, 관광소비자의 가치지각 측면별로 이미지 차별화가 여행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해외의 주요연구

한편, 해외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Lee, Var, and

Blaine(1996)는 내국인의 해외관광 규모와 관광경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고[4], Vilasuso and Menz(1998)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광에 있어서 국내 외 물가, 환율, 소득수준, 및 해외물가의 불확실성이 관광경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7]. Vilasuso and Menz(1998)에 의하면 국내소비와 해외소비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해외관광의 결정에 국내물가와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17]. 경제 성장과 연계해서 관광부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Sinclair(1998)는 경제성장과 관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18], Rudez(2008)는 소득수준이 해외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19], Dwyer and Forsyth(1997)는 해외여행의 편익을 측정하였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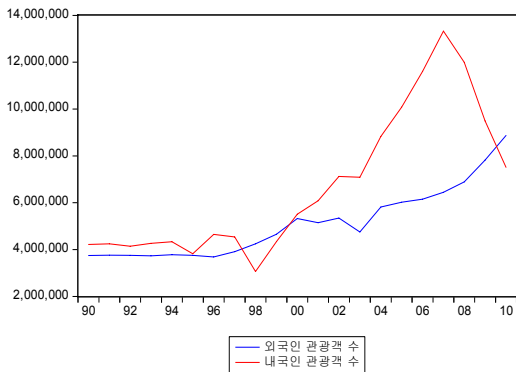
관광수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Lyssiotou(2000)는 영국의 해외관광 수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장단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고[21], Skuras, Petrou, and Clark(2006)은 정보가 국내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22], Wong(1996)은 국내 재정지출이 관광수요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규명하였다[23]. 그리고 Mokhtarian and Chen(2004)은 관광에 있어서 시간과 예산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여행시간이 개인이나 경제주체에 따라 주관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24]. Lvehammar(2008)와 Banerjee, Ye, and Pendyala(2007)는 도로망의 조건 등과 같은 관광 인프라에 따라 여행시간의 가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25][26].

국내외 관광객에 의한 해외관광과 국제수지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Armah and Teensma(2012)는 개인의 소비지출과 해외 관광경비 지출의 관계를 규명하였고[27], Gray(1967)는 관광경비 지출과 국제수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수지에서 관광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28]. 그리고 Ongan(2008)은 터키의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29]. Vogt(2008)는 미국의 내외국인 관광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규명하였다[30].

III. 현황 및 분석

1. 내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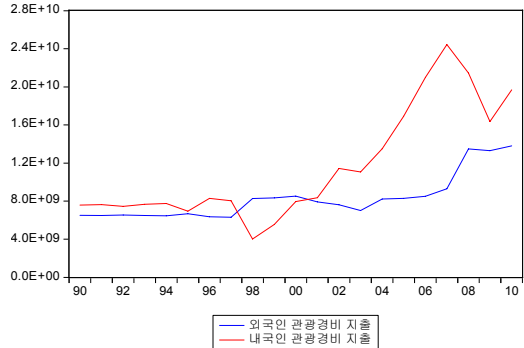
[그림 1]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추이인데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inbound tourists)과 내국인 관광객(outbound tourists)이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2008년까지는 내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

그림 1. 내외국인 관광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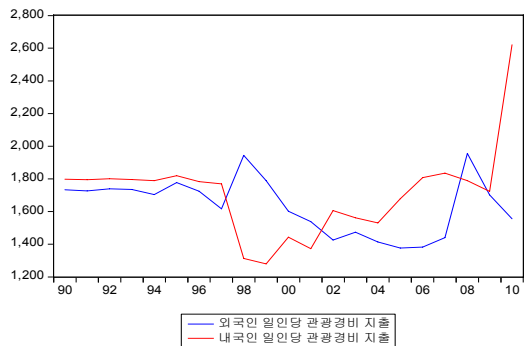
[그림 2]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 추이인데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receipts)과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expenditures)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2008년까지는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은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

그림 2. 내외국인 관광객 관광경비 지출 추이

[그림 3]은 내외국인 관광객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 추이인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지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인 관광객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에 비해 내국인 관광객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내국인 관광객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에는 균형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는 내국인 관광객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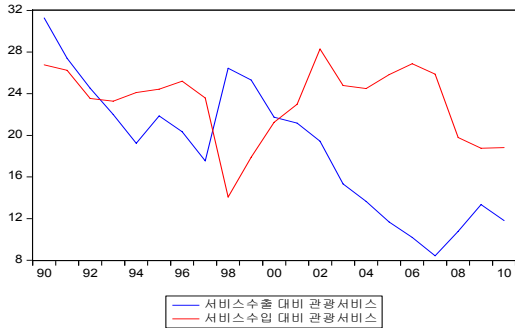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

그림 3. 내외국인 관광객 일인당 관광경비 지출 추이

[그림 4] 서비스수출입 대비 관광서비스 비중의 추이인데 서비스수출 중에서 관광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에는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서비스수입 중에서 관광서비스가 차

지하는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서비스수출입 대비 관광서비스 추이의 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

그림 4. 서비스수출입 대비 관광서비스 비중 추이

[그림 5]는 총수출입 대비 관광경비 지출 비중의 추이인데 총수출입 대비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수입대비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수출입에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총수출입 대비 관광경비 지출 추세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총수출에서 관광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

그림 5. 총수출입 대비 관광경비 지출 비중 추이

2. 변수의 설명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은데, [표 1]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수, 상대물가, 상대소득, 대미환율, 내외국인 관광경비, 내외국인 일인당 관광경비, 서비스수출입 대비 관광서비스 비중, 및 총수출입 대비 관광서비스 비중을 각각 나타낸다.

표 1. 변수의 설명

변수	내용	단위
arr_t	외국인 관광객 수	명
rp_t	세계물가 기준 한국의 상대물가	2000=100
ry_t	세계소득 기준 한국의 상대소득	2000=100
ex_t	대미환율	/\\$
$trcp_t$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	미달러
$ptrcp_t$	일인당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	미달러
$tsex_t$	서비스수출 대비 관광서비스	%
$rtrcp_t$	총수출 대비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	%
dep_t	내국인 관광객 수	명
$texp_t$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	미달러
$ptexp_t$	일인당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	미달러
$tsim_t$	서비스수입 대비 관광서비스	%
$rtepx_t$	총수입 대비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	%

3.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각 변수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및 Jarque-Bera 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통계적 특징은 주로 왜도, 첨도, 및 Jarque-Bera 통계량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왜도는 통계분포의 대칭성(symmetry)을 나타내는데 왜도가 0(unity)이면 완전한 대칭분포를, 양(+)의 값이면 오른쪽으로 긴 꼬리(right-skewed)를, 음(-)의 값이면 왼쪽으로 긴 꼬리(left-skewed)를 각각 의미하는데, 따라서 ry_t , $rtrcp_t$, 및 $tsim_t$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의 통계분포임을 알 수 있다.

첨도(kurtosis)는 통계분포 꼬리의 두꺼운(fat tail) 정도를 나타내는데 변수의 통계분포가 정규분포이면 3의

표 2. 기초통계 분석

변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J-B 통계량
arr_t	5,126	8,870	3,684	1,491	0.94	3.10	3.11
rp_t	1.03	1.22	0.89	0.10	0.64	2.65	1.54
ry_t	0.02	0.02	0.01	0.01	-0.55	2.31	1.47
ex_t	1,034	1,415	716	215	0.01	1.66	1.57
$trcp_t$	830	1,380	632	237	1.46	3.92	8.22
$ptrcp_t$	1,636	1,956	1,376	173	0.06	2.10	0.73
$tsex_t$	18.74	31.27	8.42	6.39	0.08	2.03	0.85
$rttcp_t$	3.64	5.16	2.01	0.94	-0.35	1.81	1.66
dep_t	6,680	13,325	3,067	3,071	0.81	2.38	2.65
$texp_t$	1,160	2,440	403	597	0.85	2.37	2.85
$ptexp_t$	1,710	2,621	1,279	275	1.36	7.04	20.82
$tsim_t$	23.18	28.29	14.08	3.55	-0.92	3.24	3.04
$rtexp_t$	4.67	6.15	3.49	0.65	0.36	2.82	0.47

주 : J-B통계량은 Jarque-Bera 통계량을 의미함.

값을 가지며, 이 값이 3보다 크면 첨예분포(leptokurtic)로, 작으면 평탄분포(platykurtic)로 각각 구분된다. 따라서 arr_t , $trcp_t$, $ptexp_t$, 및 $tsim_t$ 변수는 첨예분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수의 정규분포 가능성은 Jarque-Bera 통계량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정규분포를 검정하기 위한 귀무가설은 $\chi^2_{(2)}$ 검정을 따른다. 즉, Jarque-Bera 통계량이 $\chi^2_{(2)}=5.99$ 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trcp_t$ 와 $ptexp_t$ 변수는 정규분포임을 알 수 있다[31][32].

4. Granger 인과관계 분석

우리나라 내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경비 지출 형태와 관련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각 변수의 개별적인 경제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10% 유의수준에서 서비스수출 대비 관광서비스, 총수출 대비 외국인 관광경비, 내국인 관광객 수, 및 내국인 여행경비의 경우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

Granger 인과관계	F통계량	p-value	Granger 인과관계	F통계량	p-value
$larr_t \Rightarrow lrp_t$	0.95	0.41	$ldep_t \Rightarrow lrp_t$	0.66	0.53
$lrp_t \Rightarrow larr_t$	1.62	0.23	$lrp_t \Rightarrow ldep_t$	0.45	0.64
$larr_t \Rightarrow lry_t$	2.57	0.11	$ldep_t \Rightarrow lry_t$	0.29	0.75
$lry_t \Rightarrow larr_t$	1.52	0.25	$lry_t \Rightarrow ldep_t$	1.84	0.20
$larr_t \Rightarrow lex_t$	0.11	0.89	$ldep_t \Rightarrow lex_t$	1.11	0.36
$lex_t \Rightarrow larr_t$	0.88	0.44	$lex_t \Rightarrow ldep_t$	9.44	0.01**
$ltrcp_t \Rightarrow larr_t$	1.48	0.26	$ltexp_t \Rightarrow ldep_t$	3.45	0.06*
$larr_t \Rightarrow ltrcp_t$	1.04	0.38	$ldep_t \Rightarrow ltexp_t$	3.37	0.06*
$ltrcp_t \Rightarrow lptrcp_t$	0.76	0.49	$ltexp_t \Rightarrow lptexp_t$	1.19	0.33
$lptrcp_t \Rightarrow ltrcp_t$	1.04	0.38	$lptexp_t \Rightarrow ltexp_t$	3.37	0.06*
$ltsex_t \Rightarrow ltrcp_t$	4.89	0.02**	$ltsim_t \Rightarrow ltexp_t$	1.01	0.39
$ltrcp_t \Rightarrow ltsex_t$	1.12	0.35	$ltexp_t \Rightarrow ltsim_t$	0.15	0.87

주 : (***)는 5% 유의수준, (**)는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3.2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 (계속)

Granger 인과관계	F통계량	p-value	Granger 인과관계	F통계량	p-value
$ltsex_t \Rightarrow lptrcp_t$	1.61	0.23	$ltsim_t \Rightarrow lptexp_t$	1.32	0.30
$lptrcp_t \Rightarrow ltsex_t$	3.12	0.08*	$lptexp_t \Rightarrow ltsim_t$	1.55	0.25
$ltrcp_t \Rightarrow larr_t$	0.28	0.76	$lrtepx_t \Rightarrow ldep_t$	0.22	0.81
$larr_t \Rightarrow ltrcp_t$	2.90	0.09*	$ldep_t \Rightarrow lrtepx_t$	0.27	0.77
$ltrcp_t \Rightarrow lptrcp_t$	0.23	0.80	$lrtepx_t \Rightarrow lptexp_t$	0.82	0.46
$lptrcp_t \Rightarrow ltrcp_t$	2.24	0.14	$lptexp_t \Rightarrow lrtepx_t$	1.54	0.25

주 : (**)는 5% 유의수준, (*)는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5. 분석모형의 설정

Lee, Var, and Blaine(1996)에 의하면 내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은 상대가격, 상대소득, 및 환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이 상대가격, 상대소득, 및 환율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추정방정식을 설정하였다[표 1].

5.1 외국인 관광객 모형

<관광객 수>

$$arr = f_1(rp, ry, ex) \Rightarrow \ln larr_t = \alpha_{11} + \alpha_{12} \ln lrp_t + \alpha_{13} \ln lry_t + \alpha_{14} \ln lex_t + \epsilon_{1t}$$

<관광경비>

$$trcp = f_2(arr, rp, ry, ex) \Rightarrow \ln ltrcp_t = \alpha_{21} + \alpha_{22} \ln larr_t + \alpha_{23} \ln lrp_t + \alpha_{24} \ln lry_t + \alpha_{25} \ln lex_t + \epsilon_{2t}$$

$$trcp = f_3(ptrcp, rp, ry, ex) \Rightarrow \ln ltrcp_t = \alpha_{31} + \alpha_{32} \ln lptrcp_t + \alpha_{33} \ln lrp_t + \alpha_{34} \ln lry_t + \alpha_{35} \ln lex_t + \epsilon_{3t}$$

<서비스수출 대비 관광서비스>

$$tsex = f_4(trcp, rp, ry, ex) \Rightarrow \ln ltsex_t = \alpha_{41} + \alpha_{42} \ln ltrcp_t + \alpha_{43} \ln lrp_t + \alpha_{44} \ln lry_t + \alpha_{45} \ln lex_t + \epsilon_{4t}$$

$$tsex = f_5(ptrcp, rp, ry, ex) \Rightarrow \ln ltsex_t = \alpha_{51} + \alpha_{52} \ln lptrcp_t + \alpha_{53} \ln lrp_t + \alpha_{54} \ln lry_t + \alpha_{55} \ln lex_t + \epsilon_{5t}$$

<총수출 대비 관광경비>

$$rtcrp = f_6(arr, rp, ry, ex) \Rightarrow \ln lrtcrp_t = \alpha_{61} + \alpha_{62} \ln larr_t + \alpha_{63} \ln lrp_t + \alpha_{64} \ln lry_t + \alpha_{65} \ln lex_t + \epsilon_{6t}$$

$$rtcrp = f_7(ptrcp, rp, ry, ex) \Rightarrow \ln lrtcrp_t = \alpha_{71} + \alpha_{72} \ln lptrcp_t + \alpha_{73} \ln lrp_t + \alpha_{74} \ln lry_t + \alpha_{75} \ln lex_t + \epsilon_{7t}$$

5.2 내국인 관광객 모형

<관광객 수>

$$dep = g_1(rp, ry, ex) \Rightarrow \ln ldep_t = \beta_{11} + \beta_{12} \ln lrp_t + \beta_{13} \ln lry_t + \beta_{14} \ln lex_t + \nu_{1t}$$

<관광경비>

$$tepx = g_2(dep, rp, ry, ex) \Rightarrow \ln ltepx_t = \beta_{21} + \beta_{22} \ln ldep_t + \beta_{23} \ln lrp_t + \beta_{24} \ln lry_t + \beta_{25} \ln lex_t + \nu_{2t}$$

$$tepx = g_3(ptexp, rp, ry, ex) \Rightarrow \ln ltepx_t = \beta_{31} + \beta_{32} \ln lptexp_t + \beta_{33} \ln lrp_t + \beta_{34} \ln lry_t + \beta_{35} \ln lex_t + \nu_{3t}$$

<서비스수입 대비 관광서비스>

$$tsim = g_4(tech, rp, ry, ex) \Rightarrow \ln ltsim_t = \beta_{41} + \beta_{42} \ln ltech_t + \beta_{43} \ln lrp_t + \beta_{44} \ln lry_t + \beta_{45} \ln lex_t + \nu_{4t}$$

$$tsim = g_5(tech, rp, ry, ex) \Rightarrow \ln ltsim_t = \beta_{51} + \beta_{52} \ln lptech_t + \beta_{53} \ln lrp_t + \beta_{54} \ln lry_t + \beta_{55} \ln lex_t + \nu_{5t}$$

<총수입 대비 관광경비>

$$rtexp = g_6(dep, rp, ry, ex) \Rightarrow \ln lrtexp_t = \beta_{61} + \beta_{62} \ln ldep_t + \beta_{63} \ln lrp_t + \beta_{64} \ln lry_t + \beta_{65} \ln lex_t + \nu_{6t}$$

$$rtexp = g_7(tech, rp, ry, ex) \Rightarrow \ln lrtexp_t = \beta_{71} + \beta_{72} \ln lptech_t + \beta_{73} \ln lrp_t + \beta_{74} \ln lry_t + \beta_{75} \ln lex_t + \nu_{7t}$$

5.3 분석결과

분석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부터 [표 11]까지인데 [표 4]부터 [표 7]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이고 [표 8]부터 [표 11]까지는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이다. 그리고 [표 12]는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표 12]에서 규모효과는 내외국인 수에 의한 영향을, 상대가격효과는 세계가격 기준 한국의 상대물가에 의한 영향을, 상대소득효과는 세계소득 기준 한국의 상대소득에 의한 영향을, 그리고 환율효과는 원화의 대미환율에 의한 영향을 각각 나타낸다. 즉, 규모효과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수출)은 증가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가격효과는 국내물가가 상승하거나 세계물가가 하락하면 상대물가가 상승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은 감소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경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상대소득효과는 국내 소득수준이 높아지거나 세계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상대소득이 높아져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은 감소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와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환율효과는 원화의 대미환율이 평가절하 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5.3.1 외국인 관광객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상대가격효과, 상대소득효과, 및 환율효과 중에서 상대소득효과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의 경우는 규모효과, 상대가격효과, 및 상대소득효과가 모

두 양(+)으로 나타나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이 다양한 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환율효과는 음(-)으로 나타나 원화의 대미환율이 평가절하 되어도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비스 수출 대비 관광서비스나 총수출 대비 외국인 관광경비는 증가 및 감소 요인이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3.2 내국인 관광객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국인 관광객 수는 상대가격효과, 상대소득효과, 및 환율효과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의 경우도 규모효과, 상대가격효과, 및 상대소득효과 뿐만 아니라 환율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서비스수입 대비 관광서비스나 총수입 대비 내국인 관광경비 지출은 규모효과, 상대가격효과, 상대소득효과, 및 환율효과와 대체적으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5.3.3 분석결과 종합

결론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는 소득수준을 제외한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외국인 관광경비는 관광객 규모나 소득뿐만 아니라 가격과 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관광객 수나 관광경비 지출이 모두 관광객 규모, 국내외 물가, 국내외 소득, 및 환율 등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외여행 여부와 관광경비 지출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외국인 관광객 수

종속 변수	상수항	lrr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arr_t$	13.906* (5.22)	0.122 (0.22)	-0.235 (-0.49)	-0.035 (-0.31)	0.92	56.40	2.50	1.07* (15.53)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5. 외국인 관광경비

종속 변수	상수항	$larr_t$	$lptrcp_t$	lrr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trcp_t$	-1.010 (-0.25)	0.966* (6.05)	-	-2.187* (-2.80)	-2.215* (-3.76)	-0.013 (-0.11)	0.91	41.85	1.87	0.265 (1.49)
	645.46 (0.01)	-	0.747* (3.54)	-0.094 (-0.16)	-0.695 (-1.12)	-0.016 (-0.13)	0.90	36.78	2.32	1.00* (15.73)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6. 외국인 서비스수출 대비 관광서비스

종속 변수	상수항	$ltrcp_t$	$lptrcp_t$	lrr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tsex_t$	-26.742 (-0.22)	0.847* (2.19)	-	0.254 (0.22)	-0.629 (-0.54)	-0.137 (-0.61)	0.83	19.42	1.56	0.99* (10.71)
	-6.809 (-1.34)	-	0.714 (1.36)	0.416 (0.36)	-1.259 (-0.84)	-0.120 (-0.47)	0.82	18.43	1.34	0.82* (4.22)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7. 외국인 총수출 대비 관광경비

종속 변수	상수항	$larr_t$	$lptrcp_t$	lrr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trcp_t$	-8.949 (-1.03)	-0.082 (-0.23)	-	-0.386 (-0.31)	-2.629* (-2.20)	0.109 (0.43)	0.76	13.14	1.61	0.64* (3.76)
	-8.498 (-1.91)	-	0.671 (1.44)	0.639 (0.62)	-1.165 (-0.87)	0.004 (0.02)	0.79	15.71	1.58	0.75* (4.17)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8. 내국인 관광객 수

종속 변수	상수항	lrr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dep_t$	31.703* (5.41)	0.233 (0.17)	3.843* (2.86)	-0.066 (-0.23)	0.86	29.94	0.86	0.72* (4.96)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9. 내국인 관광경비

종속 변수	상수항	$ldep_t$	$lptexp_t$	lrp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txp_t$	23,683* (3.58)	0.807* (4.43)	-	0.066 (0.07)	3,219* (3.01)	-0.031 (-0.17)	0.95	76.49	1.92	0.78* (8.10)
	40,166* (4.74)	-	0.540 (1.42)	0.550 (0.39)	5,036* (3.24)	-0.092 (-0.33)	0.90	33.61	1.12	0.70* (5.66)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0. 내국인 서비스수입 대비 관광서비스

종속 변수	상수항	$ltxp_t$	$lptexp_t$	lrp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tsim_t$	13,385 (1.72)	0.106 (0.82)	-	3,889* (3.59)	3,014* (2.58)	-0.066 (-0.33)	0.62	7.29	1.60	0.31 (1.80)
	18,889* (4.01)	-	0.014 (0.07)	4,136* (3.80)	3,691* (4.16)	-0.125 (-0.63)	0.60	6.79	1.82	0.32* (2.17)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1. 내국인 총수입 대비 관광경비

종속 변수	상수항	$ldep_t$	$lptexp_t$	lrp_t	lry_t	lex_t	\bar{R}^2	F	DW	AR(1)
$ltrexp_t$	8,442 (1.56)	0.156 (1.34)	-	3,256* (3.61)	2,336* (2.56)	0.021 (0.13)	0.59	6.54	1.51	0.21 (1.06)
	17,369* (4.35)	-	-0.195 (-1.09)	3,558* (3.89)	3,346* (4.45)	-0.112 (-0.65)	0.57	6.10	1.81	0.25 (1.70)

주 : (*)는 t-통계량이며 5%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12. 분석결과 종합

구분	항목	규모효과	상대가격효과	상대소득효과	환율효과
외국인	관광객 수	n.a	-	+	-
	관광경비	+	+	+	-
	서비스수출 대비 관광서비스	+	-	+	-
	총수출 대비 관광경비	-/+	+/-	+	+
내국인	관광객 수	n.a	+	+	+
	관광경비	+	+	+	+
	서비스수입 대비 관광서비스	+	+	+	-/+
	총수입 대비 관광경비	+/-	+	+	+

IV. 결론

세계 주요 국가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교통과 통신시스템이 첨단화됨에 따라 향후 세계관광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 관광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형태를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성이 없었고,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환승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비 지출증대 대책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다

변화가 관광정책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해외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내국인의 해외관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잠재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현시화 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관광부분이 중요한 산업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내외국인 관광에 따른 관광경비 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경제와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규모의 내국인 관광객 수나 관광경비 지출을 파악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내외국인의 관광규모 및 경비지출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는 소득 수준을 제외한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단 관광이 이루어지면 외국인 관광경비 지출은 관광객 규모나 소득뿐만 아니라 가격과 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관광객 수나 관광경비 지출이 모두 관광객 규모, 국내외 물가, 국내외 소득, 및 환율 등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외관광 여부와 관광경비 지출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의 활용도 제고, 의료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자연자원과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단기적으로는 테마파크형의 관광지 개발, 한류 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마케팅 믹스 전략 등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내국인 관광객은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외관광 여부와 관광경비 지출 정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관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해외관광을 국내관광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지의 가격경쟁력 제고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선결

된다면 관광산업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도 달성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규모와 관광경비 지출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수지를 분석한 거시적 접근이다. 따라서 관광정책과 관련된 미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주제의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관광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덕병, “농어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농촌진흥청, 2012.
- [2] 조혜정, 지민정, “인천국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0-7, 인천발전연구원, 2010.
- [3] 조광익, “관광수입 감소 요인분석 및 왜래 관광객 관광지출 확대 유도 방안 연구”, 정책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0.
- [4] C. Lee, T. Var, and T. W. Blaine “Determinants of Inbound Tourist Expenditur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3, No.3, pp.527-542, 1996.
- [5] 세계은행(www.worldbankgroup.org) Database
- [6] 모수원, “환율과 유가가 관광수수에 미치는 효과”, 관광연구, 제24권, 제6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27-38, 2010.
- [7] 이강욱, 최승묵, 권태일, “환율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8] 송운강, “내국인 해외관광수요의 구조적 변화”,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pp.7-18, 2007.
- [9] 정병우, “여행수지 변동에 관한 실증분석: 여행지출을 중심으로”, 경제학논집, 제9권, 제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pp.193-213, 2000.
- [10] 이강욱, 김덕기, “관광수지 악화의 원인과 대책”, 한국관광정책, 제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pp.71-76, 2000.
- [11] 이강욱, 류광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관광연구원, 1999.
- [12] 심원섭, “한국의 관광산업 국가경쟁력 분석: OECD 주요 국가 비교연구”,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13] 전명숙, “한국 세계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추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제3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pp.75-80, 2005.
- [14] 최지연, “관광콘텐츠 활용에 관한 지역간 비교연구”, 추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제5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pp.766-768, 2007.
- [15] 이채은, 이진영, “관광행동에 따른 여행상품속성 선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pp.398-406, 2009.
- [16] 박노현, 윤유식, 양정임, “해외여행지의 관광이미지 포지셔닝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한국콘텐츠학회, pp.472-485, 2011.
- [17] J. Vilasuso and F. C. Menz, “Domestic Price, (expected) Foreign Price, and Travel Spending by Canadians in the United Stat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31, No.5, pp.1139-1153, 1998.
- [18] M. T. Sinclair,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 Surve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34, No.5, pp.1-51, 1998.
- [19] H. N. Rudez, “The GDP Impact on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A Slovenia Based Case,”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Vol.14, No.2, pp.217-228, 2008.
- [20] L. Dwyer and P. Forsyth, “Measuring the Benefits and Yield from Foreig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24, No.1-3, pp.223-236, 1997.
- [21] P. Lyssioutou, “Dynamic Analysis of British Demand for Tourism Abroad,” *Empirical Economics*, Vol.15, pp.421-436, 2000.
- [22] D. Skuras, A. Petrou, and G. Clark, “Demand for Rural Tourism: The Effects of Quality and Information,” *Agricultural Economics*, Vol.35, pp.183-192, 2006.
- [23] J. D. Wong, “The Impact of Tourism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Growth and Change*, Vol.27, pp.313-326, 1996.
- [24] P. L. Mokhtarian and C. Chen, “TTB or not TTB, That is the Question: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Travel Time (and Money) budget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Vol.38, pp.643-675, 2004.
- [25] P. Lvehammar, “Valuing in Actual Travel Time Environmental Encroachment Caused by Transport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Vol.13, pp.455-461, 2008.
- [26] A. Banerjee, X. Ye, and Ram M. Pendyala, “Understanding Travel Time Expenditures Around the World: Exploring the Notion of a Travel Time Frontier,” *Transportation*, Vol.34, pp.51-65, 2007.
- [27] M. Amah and T. Teensma, “Estimates of Categories of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djusted for Net Foreign Travel Spending,” *Survey of Current Business*, Vol.92, No.4, pp.13-21, 2012.
- [28] H. P. Gray, “The Balance-of-Payments Cost of Foreign Travel Expenditure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34, pp.17-26, 1967.
- [29] S. Onga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Tourism Receipts in Turkey,” *International Trade Journal*, Vol.22, No.1, pp.39-62, 2008.
- [30] M. G. Vogt,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US Exports and Imports of Tourism,” *Applied Economics*, Vol.40, pp.667-672, 2008.
- [31] R. S. Pindyck and D. L.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4th. ed., McGraw-Hill, 1998.

[32]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2.

저 자 소 개

이 현 재(Hyun-Jae Rhee)

정회원



- 1979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1986년 8월 : Utah State University(경제학석사)
- 1994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경제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성과분석, R&D투자분석